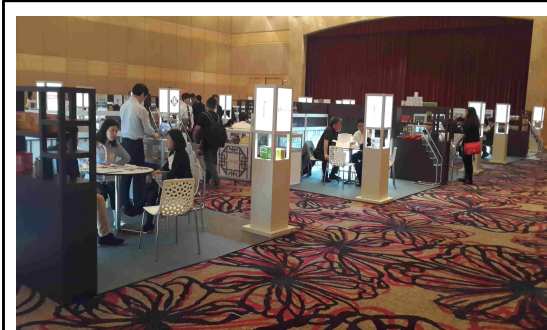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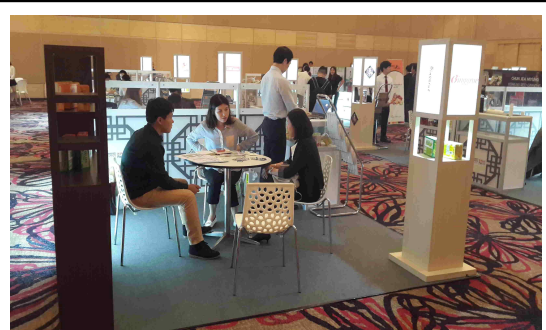
K FOOD FAIR 2015 MALAYSIA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주관한 K-food fair 2015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8월 13일 첫날에는 7개 할랄식품 수출업체를 포함한 20개의 한국 식품 수출업체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현지 식품 바이어들의 비즈니스 상담회 및 할랄 세미나가 쿠알라룸푸르 원월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바이어 상담회 장소에는 한국 할랄식품 및 한국 유일의 할랄인증 기관인 한국이슬람중앙회(KMF)홍보 부스를 마련해 두어 수출입업체들이 한국 할랄에 대한 신뢰도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바이어 상담회장 전경



바이어 상담회 모습

이번 할랄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 JAKIM의 할랄인증 소개 및 절차, 한국 유일의 할랄인증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KMF)의 한국할랄인증 및 KMF와 JAKIM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각 기관의 강의자들이 발표하고 할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할랄 세미나 현장



세미나 강연 모습



현지인들로 붐비는 전시장 입구



한국 음식 관련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현지인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쇼핑몰 미드밸리(Mid Valley Convention Centre)에서는 현지 한국 식품기업 및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여하여 소비자들에게 한국 음식과 식품을 소개하며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지인들이 음식을 맛보기 위해 긴 줄을 서며 기다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사계절을 테마로 하여 각 계절을 상징하는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전통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었다. 주말 가족과 함께 방문한 현지인들은 한국의 전통놀이와 음식들, 공연을 즐기며 한국에 대해 친밀해지고 흥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할랄인증을 받은 한국음식을 살펴보는 이슬람교 소비자들



할랄인증 한국 상품들

행사장에서는 할랄인증을 받은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소개하며 관심 있는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 방송을 통해 소개되어 현지인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음식 중의 하나인 떡볶이를 복잡한 요리과정 없이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상품 요뽕끼 (주)영풍을 소개하고 즉석에서 시식을 하도록 하였다.

다오래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주)한성 김치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김치전 시연시식을 하고, 수산물 홍보관에서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한국음식 메뉴를 만들어 많은 방문객들에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름시즌 부스에서 팔방수 시식을 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현지인들.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기업인. 홍삼건강식품은 현지 화교들의 선호식품임.

그밖에 현지인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빙수, (주)한스코리아의 쌀국수, (주)다원의 허니앤유자 에이드, (주)리마글로벌의 배, 포도, 진주원예농협의 신선한 배, (주)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 딸기맛우유 등 다양한 먹거리로 주말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시식체험을 한 많은 현지 방문객들이 해당 제품 및 음식을 어디에서 구입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바나나 원산지임에도 그 맛은 색다른 (주)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시식을 하는 현지인들.

(주)다오래 한국식당의 김자반 주먹밥과 (주)한성김치의 김치전, 굴 훈제 샐러드를 맛보기 위해 긴 줄을 서있는 현지인들



진주원예농협의 신선한 배를 시식중인 현지인들.

겨울시즌 부스에서 따뜻한 국수를 시식중인 소비자(주)한스코리아의 쌀국수)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이어지는 화려한 타악공연과 비보이공연, K pop 댄스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악기의 강한 선율과 현대적인 퍼포먼스의 만남으로 현지인들에게는 이색적이고 흥겨운 시간이었다.

공연 사이에는 관람객들을 즉석에서 무대로 오르게 하여 가위바위보 게임, 빙수 빨리먹기 등의 게임을 통해 한국식품을 선물로 주는 등의 풍성한 이벤트가 있었다.

	
전통 탈을 쓴 비보이 공연을 관람하는 현지인들	공연관람을 즐기는 현지인들
	
즉석에서 게임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현지인들	K-FOOD FAIR 참석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현지인들
	
전시장 중앙에서 투호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현지인 가족	봄 시즌 부스에서 연등 만들기를 하는 현지인들

말레이시아의 K-FOOD FAIR 2015를 시작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으로 이어질 한국식품 박람회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나이와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지 소비자의 눈과 귀, 입을 함께 즐겁게 해주는 자리였다. 이 행사를 통해 이슬람국가 소비자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할랄인증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